

3



전환도시 서울과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이유진 연구기획위원 leeyujin2010@gmail.com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국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광역정전 사고, 밀양송전탑 문제를 겪으면서 도시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2년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 1기만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난 3년 동안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은 토트네스 전환거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외에도 은평구와 신촌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전환마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환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요

토트네스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환마을 운동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피크오일(Peak Oil)에 대응해 공동체가 찾은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환마을 운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2030년까지 석유 독립 계획을 세우고, 먹을거리 · 에너지 · 경제 자립도를 높여 자족적인 도시기능의 회복력을 높여가는 것이다. 지금은 2014년 11월 기준으로 세계 43개 국가 1,196개의 마을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광역정전 사고, 밀양 송전탑 문제를 겪으면서 도시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2년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 1기만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난 3년 동안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은 토트네스 전환거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외에도 은평구와 신촌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전환마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환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환마을 개념이 서울의 에너지 자립마을과 전환마을 만들기 운동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어떤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전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2.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와 전환마을

가. 토트네스 전환마을과 서울의 에너지 자립마을 설계

토트네스 석유독립을 위한 '에너지강행동계획 2030'에는 다양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가 담겨있다. 핵심 내용은 마을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전환마을의 목표가 잘 구현된 프로젝트가 '전환거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가정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3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전환을 결심한 6~10개 가구를 모아 '함께 전환하기(Transition Together)' 그룹을 만든다. 함께 전환하기 그룹은 첫 번째 단계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삶으로 생활양식을 바꾼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주택단열 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세 번째 단계로 태양광발전기로 에너지 생산하기를 진행한다.

한국에서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그린 빌리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사업을 많이 벌였지만 설비 중심으로 진행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전력생산을 태양광에 의존해 전기요금이 저렴해지자 오히려 가구당 전력소비가 늘어나기도 했고, 정부주도의 방식이 곳곳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토트네스의 '전환거리 프로젝트'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해 성공모델을 이끌었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량에만 치중하기 보다 공동체가 함께 전환을 기획하고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며, 태양광 발전기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2012년까지 '전환거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구는 500여 가구가 된다. 전환거리가 2030년까지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 토트네스 전환마을이 완성되는 것이다. 십여가구가 모여 전환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3단계 프로그램을 마치면 하나의 전환거리가 완성이 된다. 수십~수백개의 전환거리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거리가 모여 마을이 되듯이 마을 전체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림1 전환거리 프로젝트 개념도



자료 : 이유헌 2013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을 설계할 때 에너지 자립마을을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수여를 최소화하여 마을공동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마을'로 정의하였다. 사업 추진은 1단계 최대한 아끼는 '절약실천활동', 2단계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3단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에너지 컨설팅 지원, 주민·활동가 네트워크 구성, 마을 추진 단계 설정 및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마을이야기와 에너지를 접목한 스토리텔링 개

발, 마을 주변 지역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견학 체험코스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나. 에너지 자립마을 진행현황

서울에서는 현재 15개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3년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서울의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 자립마을도 단독주택형이 있고, 공동주택형이 있다. 현재 주택형인 자립마을은 성대골, 새재미, 십자성, 돌을별, 산골, 긴고랑, 삼각산, 성미산 등 모두 8군데이고, 공동주택형은 방학우성2차, 둔촌한솔솔파크, 구로 쌍용플래티넘, 전농 래미안 아름숲, 창신 두산, 석관 두산, 현대푸르미 등 7곳이 있다. 15개의 마을들은 하나하나가 토트네스 전환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처럼 작동한다.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자문단을 만들어 마을이 사업을 진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돕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따르면 2013년 전년대비 가정용 전기 사용량 절감률이 서울시 전체가 0.6%인 반면, 자립마을은 평균 4.2%를 기록하며 전기사용량 부분에서는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3단계에 진입한 마을(십자성, 새재미, 방학우성, 돌을별)에서는 태양광을 통한 전력생산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15개의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을 하고, 멀티탭이나 LED 교체, 틈새바람막기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정용 또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독주택형 사례인 성대골과 공동주택 사례인 석관 두산의 사례를 통해 전환마을 개념이 서울의 에너지 자립마을에 어떻게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다. 성대골의 전환마을 실험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은 동작구 상도3, 4동 성대시장 일대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성대골은 서울시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우리동네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통해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도서관에서 에너지 교육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계획된 에너지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때 성대골 주민들은 ‘토틸네스 전환마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이 곧 생산이라는 생각으로 ‘절전소’를 만들기 시작한다. 주민들이 매달 전력소비량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해 확인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전력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정에서 시작된 절전소 운동은 인근 상가와 학교로 확산되었다. 주민들은 인근 ‘국사봉중학교’에서 에너지 동아리를 대상으로 에너지 강의를 하고, 학교의 전력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서울의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학교’에 대한 단열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중창과 내단열 공사, 적정기술인 태양열 온풍기, 효율 좋은 화목난로를 통해 마을학교 공간의 냉난방을 전기와 석유, 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공간으로 만들었다. 2013년에는 이동하는 에너지 카페를 만들었는데, 트럭을 개조해 태양광발전기를 올리고, 태양광이 생산한 전기로 커피, 주스, 솜사탕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동하는 에너지카페 해바라기’는 태양광 활용을 체험할 수 있어서 교육용으로 인기가 높다. 문제는 성대골에 위치한 주택의 방향이 태양광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

는 것이다.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설로는 태양광이 가장 적합한데 물리적 여건의 제약으로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도초등학교 지붕위에 태양광을 올리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옥상 부지를 임대해주지 않고 있다. 2013년 연말에 마련한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마을 토론회에서 이제는 이러한 활동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동네에 에너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단열개선 사업을 하는 건축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했고, 2014년 1월 24일 협동조합의 사무실을 겸한 성대골 ‘에너지 슈퍼마켓’을 열었다. 에너지 슈퍼마켓에서는 에너지 절약 교육에서 시작해, LED, 멀티탭, 에

표2 토틸네스와 성대골 전환활동 비교

전환 활동	토틸네스	성대골
에너지	전환거리(Transition Street) 프로젝트 태양열 온수기 공동구매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TRESOC)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절전소와 에너지 진단 이동하는 에너지카페 ‘해바라기’운영 적정기술 활용(태양열 온풍기)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 성대골햇빛발전소 프로젝트
빌딩 주택	따뜻한 대본 만들기 지역개발계획 참여 생태건축(Eco-construction) 코하우징	틈새바람막기 단열개선 사업(BRP) – 노인정 시범사업 주택협동조합 주거환경관리사업 에너지 반영
교통	교통 계획에 참여하기 바이오연료 사용하기 자전거길 만들기	주차장을 마을공원으로 전환
경제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고효율 전구 교체 사업 지역화폐활동 지역기업지원	착한가게 LED 허브센터 마을기업 – 마을닷살림 동네에너지 슈퍼마켓
먹거리	텃밭 공유 프로젝트 로컬푸드가이드북 넛나눔심기 프로젝트 씨디 씨스터즈 – 종자 보존 푸드허브 –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푸드링킹	텃밭 만들기 도시농부학교
교육	마이스토리 – 세대 간 소통, 과거를 돌아봄 전환 도서관 – 전환관련 자료를 모아 이용 편리하게 함	국사봉 중학교 절전소, 환경동아리 교육, 적정기술 교육 에너지 강사, 진단사 양성 탈핵학교
문화 예술	지속가능한 예술가 문화행사를 통해 인식증진, 창조, 상상, 재미 북돋우기	원전하나줄이기 합창단 유랑극단, 환경영화제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축제

자료 : Transition Town Totnes, 2010을 토대로 재구성

어킨 차양막과 같은 각종 에너지 절감기기와 미니태양광까지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생산에 관한 사회적경제를 만들기 위해 실험하고 있다. 더불어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에너지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은 자기 집을 고쳐 짓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다. 마을 재생사업에 에너지절감과 효율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토틸네스 전환마을은 주민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성대골도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교육과 더불어 성대골에너지 축제를 3회째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두 달에 한번 열던 장터를 에너지와 결합해 축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성대골마을은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 주거환경관리사업, 서울문화재단 사업 등 마을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에너지와 결합해 지역경제, 문화,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

표2는 토틸네스에서 벌어지는 전환실험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항목에 맞게 성대골에서 진행 중인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성대골이 비록 토틸네스와 같이 '2030 에너지 하강행동계획'과 같은 장기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에너지, 주택, 교통, 경제, 먹거리, 교육, 문화예술 전반에서 전환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전환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진행하는 것이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가 전환마을 운동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라. 석관동 두산아파트의 전환마을 실험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는 2010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했다. 녹색연합이 성북구와 함께 벌이고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절전소' 활동도 벌이고 있다. 절전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발전소'란 뜻이다. 4년 동안 줄인 전력 소비량은 200만kWh에 이른다. 활동의 결과 2010년 15억2,000만원을 내던 전기요금에 2014년에는 11억2,000만 원으로 4억 원이나 줄었다.

두산아파트는 서울시의 LED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 2012년 공용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형광등 1,450개를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고, 가로등 82개도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다. 투자비로 1억4,000만 원이 들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1,000만 원씩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공용전기 사용량은 300만kW에서 190만kW로 37%나 줄어들었다. 공용전기 소비가 뚝 떨어지자 주택용과 따로 맺었던 한전과의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으로 바꾸어 요금을 또 절약했다. 두산아파트에서 LED의 경제성이 입증되면서 서울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LED 교체 열풍이 불었다.

2014년에는 에너지자립마을로 지정되었고, 부스터 펌프를 설치해 급수 펌프로 인한 전기사용량을 연간 10만 킬로와트 이상 줄였다. 이렇게 절감한 에너지 비용으로 경비원 임금을 14% 올리고, 고용도 보장해 주었다. 이 아파트에서는 용역업체가 경비원을 해고하려면 주민대표에게 타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 3년 전부터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경비원 교체는 안 된다'는 문구를 아예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이다.

더불어 아파트 최초로 에코 에너지 체험장을 설치하고, 아이들의 관심이 높은 별 관측과 에너지 절약을 연계하고 있다. 실제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실천에 옮기는 공동체인 것이다.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에서 마을공동체를 일구고, 4년째 절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가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와 일자리, 에너지와 교육 등 에너지 절약과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고 있다는 점도 전환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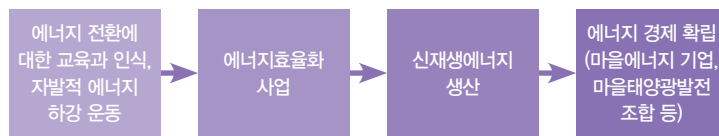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은 토틸네스 전환마을처럼 각 마을들이 2030년 장기석유독립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환마을 운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환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에너지가 지역경제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성대골 주민들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지속되

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마을에서 단열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아 마을닷살림이라는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마을학교 단열개선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노후주택 단열개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마을기업을 만든 것이다. 이어 마을닷살림 협동조합에서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마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는 일에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에너지자립경제’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성대골이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벌이면서 에너지 강사, 에너지 컨설턴트, 에너지 카페 ‘해바라기’ 운영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주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에너지 절감기구 판매와 에너지교육, 집수리단열개선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동네에너지슈퍼마켓과 마을에너지 협동조합이 잘 되면, 마을의 에너지자립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경제가 확립되는 것이다.

표3 에너지 자립마을의 단계적 접근



4. 풀뿌리 전환마을 운동의 시작 - 전환마을 은평, 전환도시 신촌

2014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과 관계없이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전환마을’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1월 29일, 생태보전시민모임,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녹색당,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퍼머컬처학교 등이 모여 ‘전환마을 은평’ 설명회를 열었다. 전환마을은 석유로부터 독립하는 것 만큼이나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전환마을 설명회에서는 전환마을의 꿈을 현실로 이뤄낸 마을들, 은평에 이미 있는 ‘전환의 자원들’, 30년 후 전환마을 은평, 은평전환마을운동네트워크(가칭) 제안 논의, 세계전환마을 지도 등록 순으로 논의가 되었다. 은평구에서는 이미 마을 텃밭을 일궈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교육과 문화행사를 펼쳐왔는데 이것이 모두 전환을 위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림1 은평 전환마을 포스터에 나타난 전환마을 운동의 지향



자료: 전환마을 은평

“관계의 빈곤은 에너지의 빈곤이나 경제적인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며 지구환경위기의 진짜 대안은 소통과 공유 그리고 협동이라고 전환마을은 말합니다.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이웃 관계의 회복만이 에너지의 고갈과 환경위기에 맞설 재생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전환도시-신촌’ 활동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연세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신촌 도시에 광장이 생겼다. 신촌에서 지역포럼을 운영해온 신촌민회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된 연세로를 중심으로 예술가, 독립제작자, 지역 활동가, 도시디자인 전문가, 환경 및 관련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전환도시-신촌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환도시-신촌은 상가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연세대학교 및 신촌 지역의 에너

지협동조합 조직, 재생가능에너지를 매개로 하는 주민모임과 문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촌지역의 역사, 문화, 대학을 연계해 '전환'이라는 화두로 도시재생사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신촌동 직능단체, 신촌 지역주민, 상인, 구의원, 시의원, 신촌민회, 협동조합, 교회(대현교회, 창천교회, 신현교회, 봉원교회 등), 사회적기업, 마을학교 관계자, 연세대, 이화여대 등 도시재생 관련 학과 학생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환마을-은평과 전환도시-신촌은 활동을 준비하면서 전환마을- 토트네스에 대한 강의와 교육을 통해 전환마을 운동이 에너지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거재생, 공동체 회복, 마을 경제 등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환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참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5. 시사점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 서울을 석유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마을과 공동체 단위에서는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수월하다. 더욱이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마을 만들기, 원전하나 줄이기, 도시농업 등 다양한 사업은 공동체가 전환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전환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이 전환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도 그 일이 전환도시 서울을 만드는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수많은 공동체들이 토트네스와 같이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면 그 공동체들이 모여 전환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은 토트네스의 전환마을과 일맥상통한다.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성대골과 석관두산아파트 같은 공동체 에너지 자립 사례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환마을-은평, 전환도시-신촌과 같이 자발적인 전환운동이 싹트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이다.

남은 과제는 전환을 조직하는 일이다. 서울의 많은 공동체들이 전환이라는 목표와 지향아래 전환조직과 전환실험에 동의하고 함께 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도시농업을 전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전환운동을 기획하고 연결하

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석유 없는 세상이 왔을 때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전환도시 서울을 위한 '에너지하강행동계획 2030'을 만들어야 한다. 토트네스에서 만든 '에너지하강행동계획'은 공동체가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러나 토트네스처럼 의식과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인적 토대를 갖춘 곳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환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전환도시 서울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원해 시민들이 '전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전환도시의 핵심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석유 없는 세상이 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두렵지만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모두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이제 건설과 확장의 시대는 끝나간다. 소비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주거 환경과 자연 환경도 자연스러운 순환시스템을 갖도록 회복해야 한다. 공동체를 통한 치유와 재생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고, 지역에서 스스로 식량과 에너지, 경제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스스로 생존의 조건을 갖추고 준비하기 위해 도시에서도 먹을거리와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먹을거리와 에너지 문제가 현실화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미래를 준비해 온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는 매우 클 것이다. 바로 지금, 석유 없는 서울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참고
문헌

- 서울시, 2012,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 서울시, 2013,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1년 성과 보고서, 서울시
- 성대골사람들, 2013, 에너지를 꿈꾸는 동작구 성대골 마을 이야기, 성대골 사람들
- आयुजिन, 2010,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이후 출판사
- आयुजिन, 2013, 전환도시, 한울
- 이창우, 2013, 석유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전환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연구원
- 한겨레신문, 조흥섭의 물바람 숲, 경비원도 행복한 '절전소' 아파트, 2014.12.01
- Ben Brangwyn and Rob Hopkins, Transition Initiatives Primer - 전환도시 만들기 매뉴얼, 홈페이지(<http://transitiontowns.org/TransitionNetwork/TransitionNetwork#primer>)
- Transition Town Totnes, 2010, Transition In Action - Totnes Energy Descent Action Plan 2030
- 은평전환마을운동네트워크(가칭)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transitioneunpyeong>)
- 전환네트워크 홈페이지HYPERLINK ~www.transitionnetwork.org~(www.transitionnetwork.org)
- 전환도시 신촌 홈페이지 (<http://www.transitioncity.kr/>)
- 트랜지션 타운 토트네스 홈페이지 (transitiontowntotnes.org)